

어제 판 돈이 하루 만에 돌아왔다 — +5.89% — 40조 자사주 매수가 시작된 날, 하이닉스 +12.73%로 화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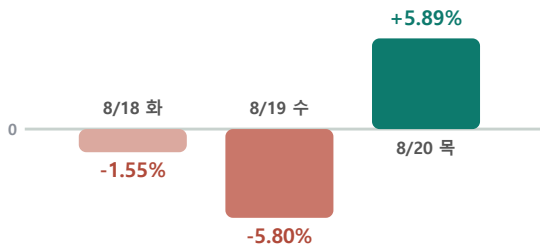
어제 -5.80%를 오늘 +5.89%(6,852.58, +381.41p)로 되받았습니다. 이번엔 매수 쪽 사이드카였습니다. 이를 연속, 방향만 바뀌 사이드카가 걸린 장입니다. 어제 3조 5천억을 팔았던 외국인은 오늘 1조 7,092억 순매수로 돌아왔고, 어제 폭락장에서 힘을 못 쓰던 하이닉스의 40조 자사주 소각 재료가 취득 개시일인 오늘 불을 붙였습니다.

① 채점 — 48호가 적어 둔 두 가지

예고 (47-48호)	결과	판정
7월 FOMC 의사록 — 인상 소수의견에 몇 명이 섰는지 (오늘 새벽 3시 공개)	3명이 25bp 인상에 반대표. 의사록 표현도 6월 "소수(a few)"에서 7월 "몇몇(several)"로 세졌고, 다수(many)는 "물가가 2%로 안 내려오면 인상 필요"라고 봤습니다. 다만 채권시장은 "우려보다 무뎠다"며 안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	채점 완료
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는지, 이를 낙폭이 진정되는지	순매도는 하루로 끝 — +1조 7,092억 순매수 전환. 낙폭은 진정을 넘어 대부분 회복	채점 완료

② 사흘의 롤러코스터 — 숫자로

코스피 등락률(%) — 8/18~20



날짜	코스피 증가	등락	외국인(억원)
8/18 화	6,869.83	-1.55%	+860
8/19 수	6,471.17	-5.80%	-34,884
8/20 목	6,852.58	+5.89%	+17,092

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기준, 사흘 순합은 -1조 6,932억 — 돌아왔지만 판 것을 다 되사지는 않았습니다.

세로막대 · 이를 연속 사이드카 — 어제는 급락 쪽, 오늘은 급등 쪽. 8/18 증가 6,869.83 대비 오늘 증가는 -0.25%, 거의 제자리입니다.

③ 오늘의 종목 — 반도체가 끝났다

SK하이닉스 1,691,000원 +12.73% · 장중 1,721,000원까지	삼성전자 271,000원 +9.49% · 어제 낙폭을 넘겨 회복	코스닥 840.89 +1.99% · 코스피보다 잔잔
--	--	---

하이닉스 40조 434억 자사주 취득·소각(발행주식의 약 3.3%, 2,407만 주)은 어제 발표됐지만 어제는 -9.75%였습니다. 오늘부터 3개월간 장내 매수가 실제로 시작되자 +12.73%. 보도는 여기에 **미 장기금리 진정**을 함께 짚었습니다. 같은 재료가 하루 시차를 두고 다르게 소화된 것인데, 무엇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가를 데이터는 없습니다 — 순서만 기록해 둡니다.

④ 그동안 실물은 — 현물가는 이 폭을 모른다

구분	8/19	8/20	이틀 변동
코스피	-5.80%	+5.89%	진폭 11.69%p
DRAM 현물가 (DDR5 16Gb 세션 평균)		\$53.77 (8/20 세션)	+0.94%
DRAM 현물가 (DDR4 16Gb 세션 평균)		\$90.59 (8/20 세션)	+0.54%

출처: TrendForce/DRAmeXchange 8/20 18:10(GMT+8) 세션. 주가가 이틀간 11%p를 오간 사이 현물가는 1% 안팎에서 미세 상승 — 심리는 널뛰었지만 실물 가격은 조용했습니다. 현물가는 세션 단위 시세로 계약가와 다르며, 이 대조가 방향을 말해주는지는 않습니다.

⑤ 다음 확인 지점

금 8/21 관세청 8월 1~20일 잠정 — 41호의 반도체 비중 46.8% 유지 여부. 채점표의 마지막 미도래 항목	하이닉스 자사주 3개월 장내 매수 기간의 수급 효과 — 예측이 아니라 관찰 대상입니다	유가 · 금리 호르무즈발 유가와 미·일 장기금리 — 이번 주 급등락의 바탕 재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
--	--	--